

국고를 채우는 방법

안토니우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다 못하여 예후다 하나시 랍비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돈이 많이 모이지게 될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랍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사람을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잘 있던 큰 나무들을 모두 뽑고 작은 순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신은 황제에게 돌아와서 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제는 탄성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황제는 곧 총리, 세리들을 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성은 없지만 정직한 관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얼마후 국고가 충분해졌습니다.